

# 2023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제2차 항소위원회 결정문

## 결정

대상자: 이규호 선수 (피노카트)

주소: 대구시 \*\*\* \*\* \*\* \*\* \*

## 주문

본 항소위원회는 해당 대회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항소자, 보호자 및 팀 관계자, 피항소자 및 보호자의 의견 청취와 포스트 보고서, 감정 및 공식 기록지, 당시 심사 결정문, #1 선수의 인캠 영상, 바로 뒤를 따르던 #2 선수의 인캠 영상 등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이들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해당 대회 심사위원회의 컨택(푸싱)에 대한 결정의 어떠한 오류도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해당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되어야 하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 및 결정되었으므로, 항소위원회의 판단으로는 해당 경기의 심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행정적 행위와 절차에 오류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진다.

이에 신청인의 항소는 기각한다. 또한 항소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 본안 전 판단

본 항소위원회는 해당 대회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항소자, 보호자 및 팀 관계자, 피항소자 및 보호자의 의견 청취와 포스트 보고서, 감정 및 공식 기록지, 당시 심사 결정문, 오피셜 배치도, #1 선수의 인캠 영상, 바로 뒤를 따르던 #2 선수의 인캠 영상 등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본 항소위원회는 먼저 항소자가 규정된 시간 내에 항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청서는 규정된 1시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본안 판단

### 1. 대상자의 지위

대상자는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등록된 드라이버 라이선스 보유자이다.

## 2. 신청인의 항소 내용

2023년 5월 14일에 있었던 2023 KIC KART Racing Cup 1Round 시니어 결승 1Lap 주행 중에 6번 코너에서 #1과 #11 차량의 컨택(접촉)이 있었으나 #1의 코너 속도가 늦어 #11의 코너 탈출 과정에서 고의적인 접촉이 아니었으며 순위 변동도 없었고 7번 코너를 지나 8번 코너에서 컨택 없이 추월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1이 주장한 7초 가산은 해당코너에서 컨택 후 순위변동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페널티이며 두 코너 뒤에 컨택 없이 추월한 상황에 나올 수 없는 페널티라고 주장한다.

또한 6번 코너에서 컨택 후 7번 코너 지나서 8번 코너에서 추월하기 전까지는 #11이 #1 보다 후행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6번 코너에서의 컨택은 푸싱이라고 볼 수 없으며 '2023 국내카트대회 페널티 통일규칙'에 의거하여 부과된 7초 가산 페널티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2023 국내카트대회 페널티 통일규칙'에 의하면 레이스 상황에서 후행 카트의 프론트가 선행 카트 뒤 범퍼에 접촉하는 것을 푸싱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코너 진입 시의 푸싱은 강, 약에 관계없이 100% 푸싱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상이 되기 쉬운 에리어>에서 코너 진입 구간/선회 구간, 후방에서 접촉이 위험한 지역의 페널티의 판단에도 선행 카트의 순위가 떨어지거나 리타이어한 경우, 선행 카트가 타격을 받은 동일 주회 중에 순위가 떨어지거나 리타이어한 경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선행 카트의 위험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푸싱의 유도에 따른 페널티를 선행 카트에 부과할 수 있음도 규정되어 있으나 제시된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선행 카트의 푸싱 유도를 명백히 확인할 수는 없다.

본 건의 경우, #11이 1랩 6번 코너에서 후행 중 선행하는 #1의 우측 후미를 중앙 좌측 프론트로 컨택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1이

주행 중이던 Racing Line에서 좌측으로 급격히 조향을 하게 되었고 #11은 #1의 우측으로 곧바로 자리를 잡게 됨(Side by Side)을 #1이 제공한 인캠 동영상(#1 인캠, #2 인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1이 주장한 8번 우코너에서 추월하기까지 #1 보다 후행 하였다는 주장에 반하는 것이다.

#11은 컨택 이후 #1과 좌코너인 7번 코너를 동시에 선회하였고 우코너인 8번 코너에서 추월을 완성하게 되었다.

의도하지 않았던 컨택이라면 항소인은 #1에게 확실한 양보의 의사를 표현하여야 하였을 것이나 동영상의 어디에도 양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주행 패턴은 보이지 않았다.

컨택의 결과로 #11이 코너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며 #1이 정상적인 주행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여 8번 우코너에서 추월을 허용하게 된 점을 보아 두 선수간의 접촉이 추월에 영향을 끼쳤다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부정할 수는 없다.

5월 26일에 개최된 항소위원회에서 #1의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1은 #11과의 컨택 건과 관련하여 항의를 준비하여 #1과 #2의 인캠 동영상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1과 #11의 심의과정에 이 동영상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11은 #1에게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의 조치가 있었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항소위원회는 해당 경기 심사위원회가 심의 되어야 하는 적합한 절차 및 규정에 따랐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4. 결론

항소자와 신청인의 항소 신청을 기각한다.

2023년 6월 13일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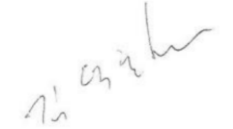
위원장 황태영



위원 김광진



위원 김덕호



위원 김상덕



위원 장성국

